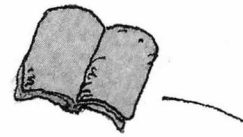


책이 간직한 근원적 침묵에의 그리움

승화인가 逆승화인가

장석주
문학평론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무엇도 책만큼 나를 사로잡았던 것은 없다. 책만큼 나를 간절하게 하고, 책만큼 나를 매혹하고, 책만큼 나를 행복한 몰입 속으로 이끌었던 것은 없다. 저 어린시절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맺어진 책과의 운명적 만남은 결국 나를 책 만드는 사람, 책 쓰는 사람의 길을 가도록 했다.

외로운 낮에 위안이면 책

일말의 회한, 일말의 우수없이 되돌아볼 수 없는 백수건달이었던 스무살 안팎의 시절, 남들 다 가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비루먹은 개처럼 떠돌던 그 시절 책은 내 외로운 낮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위안이었고, 꿈이었고, 희망이었다. 하늘을 뒤덮은 새벽의 검은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집을 빠져나와 시립도서관의 입실권을 받아들이고 하루종일 죽치고 책을 읽던 그 시절 나는 언제나 호주머니는 텅 빈 가난뱅이였지만 마음은 누구와도 비길 데 없이 넉넉하고 풍요로웠다. 나무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종일 책에 빠져 있다 보면 일어서서도 등뼈가 한동안 곧추 세워지지 않는다. 마치 휘어진 철근처럼 그것은 한동안 굽어 있다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펴진다. 나는 그 고통마저도 사랑했다. 날 저물어 시립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래서 벅찬 감격이 그득하곤 했다. 그날 내가 찾아 읽은 책들이 내 가슴 가득 발효시킨 행복감 때문이다. 내가 읽고 싶은 책 한권을 찾기 위하여 청계천의 고서점가를 며칠씩 헤매다가 마침내 어느 고서점의 한 구석진 자리에 꽂혀 있는 그 책을 발견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필설로 다할 수 있을까. 그 책을 나는 나 혼자만이 오롯하게 즐기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곳을 찾다가 우이동의 한 산골짜기 소나무로 둘러싸인 어떤 이의 무덤가에 비스듬히 누워 그 책을 펴두고 천천히 그 책을 한 페이지씩 넘겼을 때! 그 책과 나는 하나로 합일되어 하나의 새로운 개체로 태어나는 듯한 느낌 속에 빠져들었다. 좋은 책은 그 안에 살아야 할 하나의 의미로운 인생과 우주를 품어안고 있는 법이다. 그 책들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책들이다. 책은 오랫동안 나를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였다.

지금 나는 수천권의 책들이 벽면의 서가마다 가득 꽂힌 서재를 갖고 있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서점에 나가 새로 나온 책들을 살피고 내가 읽어야 할 책들을 찾는 일에 기쁨을 느낀다. 책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여전히 내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책은 예전만큼 내게 큰 기쁨을 주지 않는다. 다만 인색하게 아주 작은 한권의 책을 읽어냈다는 정도의 성취감 정도밖에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예전만큼 책은 나를 사로잡지도 못할 뿐더러 나는 한권의 책 속에 열광적인 집중으로 빠져들지를 못한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내면 속에서 작게, 귀기울이지 않으면 농칠 정도로 작게 소리치는 하나의 외침을 들었다. 그 소리는 '책이여, 나를 놓아다오'라는 외침이다. 서점에 꽂혀 있는 그 많은 책들이 다 '의미'로 다가오지 않고, 고결한 '존재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꼭 필요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고마워 해야 할 至福의 하나이지만 그 많은 책들

농축된 사색, 삶과의 고투를 통해 걸러진 맑은 지혜가 빠져 있는 책들은 낮이 없는 육신과도 같다. 그것들은 덧없는 소모품이며, 조만간 버려질 공해물이다. 써지도 않는 그 책더미들이 밀려오는 악몽에 빠질 때 내 입에선 "책이여 나를 놓아다오"라는 비명이 터져나온다.

중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쁨과 의미와 가치로 속이 꽉 차 있는 책은 얼마나 될까, 하는 무서운 의혹이 내 마음 속에서 고개를 쳐든다.

부실한 책이 만들어내는 공해

정말로 책이 너무 흔해졌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책을 쓰고, 너무나 쉽게 책을 펴낸다. 그래서 없어도 좋을 책들이 무섭게 범람하고, 그것들이 서가를 점잖게 차지하고 꼭 있어야 할 '존재성'으로 충만한 책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좁히고 있다. 우리는 늙은 수도승들이 갈대펜으로 양피지 위에 몇달, 심지어는 몇년간에 걸쳐 일일이 글씨를 촘촘히 써넣고, 장식문자와 그림들을 집어넣고, 장정을 하는 사람이 직접 꿰매고 다듬어서 겨우 한권의 책을 만들어내던 시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흘러나왔는가. 양피지로 된 책 한권을 써내고 나서 수도승들은 등뼈가 휘어버리고, 눈은 침침해져버리고 만다. 나는 그런 늙은 수도승의 말없는 육체의 정성과 수고, 깊은 침울함과 오랜 기다림, 그리고 페이지마다 고독한 사색이 깃들어 있고, 손으로 일일이 채색한 옛날의 동판화처럼 아름답고 정교한 사유가 완성한 책을 읽고 싶다.

물론 책을 쓰고, 펴내는 일을 소수의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점유해서는 안될 것이다. 누구에게나 책을 쓰고, 펴낼 자유는 있다. 그러나, 한권의 책이 꼭 갖추어야 시간의 두께, 그 속에 농축된 사색, 삶과의 고투를 통해서 걸러진 맑은 지혜, 깨달음과 인식의 한 순간에 바쳐진 피투성이의 고뇌가 빠져 있는, 요란한 제목과 울긋불긋한 색으로 치장되고 써지 않는 비닐로 표지가 코팅된 그 번쩍거리는 책들은 낮이 없는 육신과 같은 것이다. 그것들은 덧없는 일회용 소모품이며, 조만간 버려질 공해물이다. 매일 서너권씩 우편으로 배달되는 기증본들 중 정말 어떤 것들은 짜증스럽고 귀찮기만 하다. 한 위대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여러권의 책으로 / 뒤덮이지 않으려다." 어떤 순간 써지도 않는 그 책더미들이 밀려와 내 삶을 뒤덮어버리는 악몽에 빠질 때 내 입에서는 절로 "책이여, 나를 놓아다오"라는 비명이 터져나온다.

책들은 서가로 보내자,
나는 거리로 나가려다

구십년대로 접어들면서 급증한 출판사의 숫자와 책의 폭발적 생산, 그리고 저자들의 대중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한 물결처럼 보인다. 지식산업 분야조차도 물량주의의 도도한 물결을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서점에 나가면 누구나 싸게 시대의 당위론적 이념과, 무거운 도덕들과, 거창한 진리를 구매할 수 있다. 그것들은 구매대에 높이 쌓여 있고,

팔려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와 함께 눈에 띄는 부실하게 만들어진 책이 만들어내는 공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내용의 빈곤함과 부실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근래 들어 오자와 탈자들이 난무하는 제대로 교정되지 않은 책들이 버젓이 서점의 진열대를 점령하고 있다. 불운하게도 그런 책을 사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책을 끝까지 참고 읽어낼 만한 인내심이 없다. 나는 읽다가 집어던져버리고 만다. 그런 책을 읽는 일은 더이상 의미 있는 지적 모험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시간의 방탕한 소모, 천박한 정신의 헛된 유희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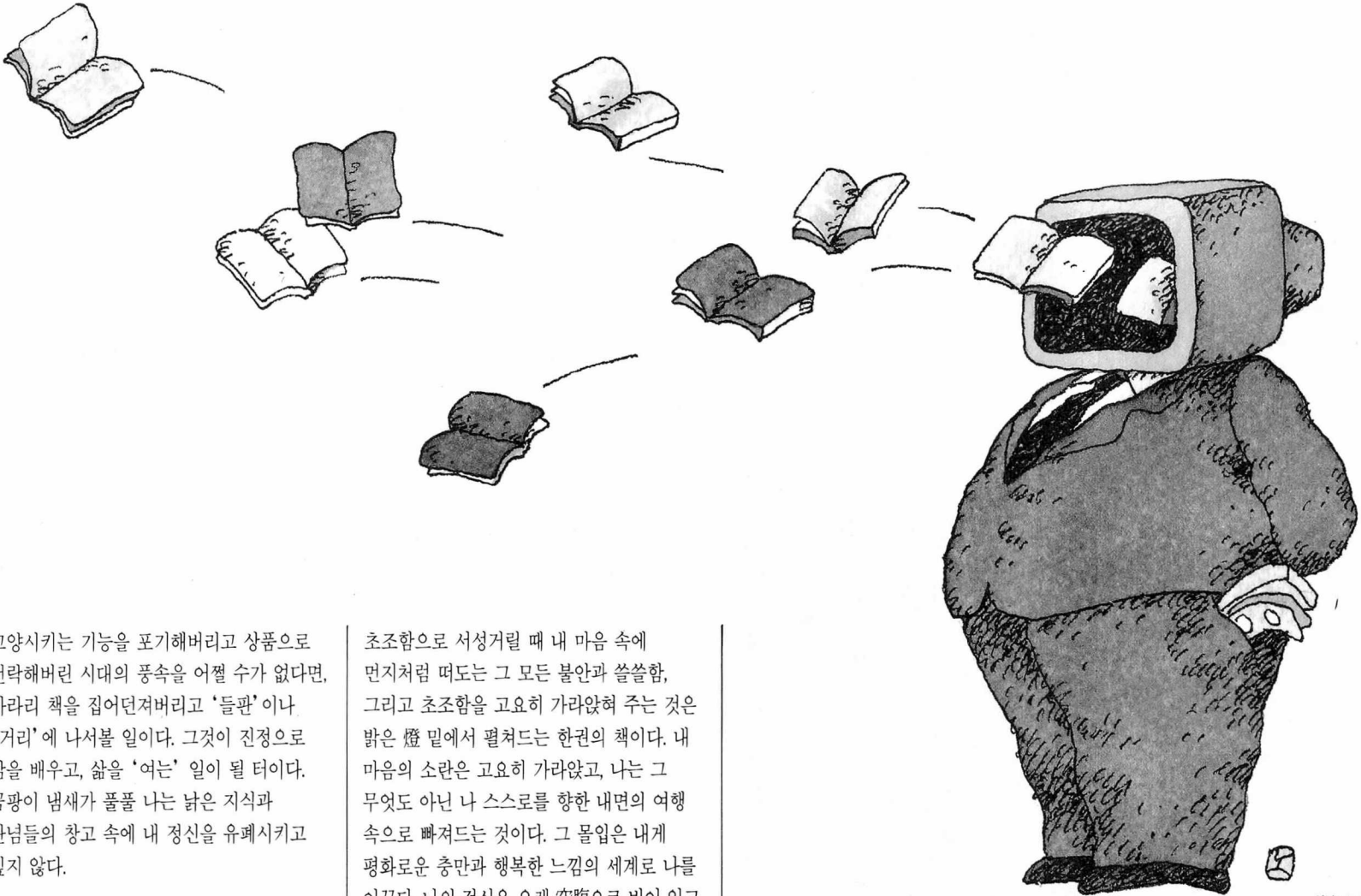
근원적 침묵에 대한 향수

책을 읽는 일이 일차적으로 책이 가진 도구적, 의사소통적, 정보교환적 요소들에 종속되지만 늘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실로 어떤 책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용한 것도 약속하지 않는다. 그렇다할지라도 그것의 완벽한 무용성, 비역압성은 우리 자신을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려주기도 한다. 그러한 책읽기는 세상의 부질없는 소음들로부터 우리를 멀찍이 떼어놓고, 삶의 헛된 미혹들과 불안들로 굳어진 정신의 관절들을 풀어주고, 소모와 난항의 그 궁핍한 삶에 대한 고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다 준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지만, 이제 점점 그것에의 몰입 때문에 나의 밤잠을 고스란히 앗아가는 그런 책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가벼운 개그, 재치있는 경귀, 공허한 수사, 낡은 교훈의 유희를 담은 비닐 표지의 책들이 인문적, 심미적 깊이를 가진 책들을 구석진 자리로 쫓아내버리고 점령해버린 서점의 한 가운데 망연한 마음으로 서성거리며 시 한 귀절을 곱씹어본다.

내가 책을 덮을 때
나는 삶을 연다

책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계시'도 아니고, 구구절절이 옳은 '엄숙한 진리'도 아니다. 나는 책을 읽다가 문득 한 귀절에서 숨을 멎고 그 책이 품고 있는 근원적인 침묵, 혹은 향기 같은 것에 취하고 싶은 것이다. 책이 더이상 인간의 품성을



일러스트레이션 / 노희성

고양시키는 기능을 포기해버리고 상품으로 전락해버린 시대의 풍속을 어쩔 수가 없다면, 차라리 책을 집어던져버리고 '들판'이나 '거리'에 나서볼 일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삶을 배우고, 삶을 '여는' 일이 될 터이다. 곰팡이 냄새가 풀풀 나는 낡은 지식과 관념들의 창고 속에 내 정신을 유폐시키고 싶지 않다.

“책이여, 나를 놓아다오”

해질 무렵 잔디밭 위로 길게 늘어뜨려지는 땅거미는 곧 다가올 어두운 밤을 예고한다. 그때 내 마음을 떠도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쓸쓸함, 생을 헛되이 소모하고 있다는

초조함으로 서성거릴 때 내 마음 속에 먼지처럼 떠도는 그 모든 불안과 쓸쓸함, 그리고 초조함을 고요히 가라앉혀 주는 것은 밝은 燈 밑에서 펼쳐드는 한권의 책이다. 내 마음의 소란은 고요히 가라앉고, 나는 그 무엇도 아닌 나 스스로를 향한 내면의 여행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그 몰입은 내게 평화로운 충만과 행복한 느낌의 세계로 나를 이끈다. 나의 정신은 오랜 空腹으로 비어 있고, 그래서 내 삶이 남루하게 느껴질 때, 나는 더욱더 한권의 책을 만나려는 열망에 빠져든다. 나는 매일매일 천박한 외관을 하고 저자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책들로 내 삶을 뒤덮고 싶지는 않다. 나는 그 책들을

향하여 “책이여, 나를 놓아다오”라고 비명을 지른다. 내가 책의 한 페이지를 열고 그것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는 것은 책의 세계 속으로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삶의 세계

속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인 것이다. (위에 인용한 시귀들은 모두 파블로 네루다의 「책에 부치는 노래 1」에 나오는 것들이다)

물질과 의식

P.M. 처치랜드 지음/석봉래 옮김/6,500원

“현대 심리철학 입문”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마음과 정신에 관한 현대적 견해를 철학적 시각뿐 아니라 과학적 시각에서 분석, 설명한다.

감산의 起信論 풀이

감산 지음/오진탁 옮김/6,000원

대승법의 관문, 선종의 나침반으로 간주되는 이 책은 삶과 죽음의 근원을 파헤쳐 깨달음과 미혹의 원인을 드러내고 수행의 바른 길을 제시한다.

귀납

N. 레셔 지음/우정규 옮김/6,000원

“과학 방법론에 대한 정당화”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귀납의 정당화에 대한 새로운 노선, 즉 방법론적·실용적 접근 방법을 설명한다.

종교간의 대화

R. 파니카 지음/김승철 옮김/4,000원

“타”(他)종교와의 만남 없이는 “나의”종교의 진리 이해는 불안 전해진다는 것을 자각하는 곳에서 종교간의 종교적인 대화가 시작됨을 밝힌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